

發刊辭

會 長

吳 石 煥

우리 水道人들 共通의 念願이던 韓國上水道協會가 73年 9月 29日 서울·體育會館大講堂에서 全國水道界人士 百餘名이 參席, 創立總會를 開催하여 그 發足を 보아 74年 2月 1日 社團法人 設立에 대한 建設部長官의 許可를 받고 法律上으로 人格을 賦與받은 團體로 새 出帆을 하였으며, 그 첫 事業으로 會員들의 精誠을 모아 協會誌인 季刊「水道」를 創刊하게 되었음을 여러 同人들과 함께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우리 協會의 얼굴인 이「水道」誌는 當分間 季刊으로 發刊될 것이나 協會의 發展과 더불어 漸次로 그 質과 量을 늘려나가면서 새로운 技術·情報·資料를 提供하며 名實相符한 水道人을 위한 雜誌로 育成해 나가려 한다.

이제 우리 나라의 上水道는 1日 3百萬噸을 生産하는 規模로 擴張되어 百五十餘個 地域에 給水를 하게 되었고, 새마을運動과 더불어 給水地域은 農漁村으로 擴大되어 가고 있으며 急進의인 工業化로 工業用水의 需要가 激增해 감에 따라 우리들의 責務가 더욱 莫重해지고 있다.

水道事業은 地方自治團體에서 獨立採算制와 收益者負擔의 原則下에 公營으로 運營되고 있어 中央政府의 強力한 支援이나 一元化된 水道行政의 뒷받침이 다른 部門보다 不足한 狀態에 있어서 이러한 隘路를 補完하는 役割까지도 協會가 擔當해야 하기 때문에 本協會의 機能이나 使命은 더욱 중요한 位置에 놓여 있다.

아직도 中小都市에서는 生産施設의 增大에만 置重한 나머지 給·配水管網에 대한 整備가 疎忽히 되어 漏水率을 減縮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大都市는 水源의 汚染이 漸次 深刻한 段階에 이르러 保健上 중대한 問題點을 惹起하고 있고 全國의 給水普及率은 아직도 40%도 未達인 現狀임을 볼 때 우리의 課題는 山積하고 있으므로 全國水道人들은 共同의 廣場인 協會에 그 힘을 모아 全體의 團合된 힘으로 이런 難題를 하나씩 解決해 나가야 하겠다.

이제 韓國上水道史 百年에 새 章은 펼쳐졌다. 보다 좋은 물을, 보다 싼 값으로, 보다 豊富하게 供給하려는 우리들의 指標를 向하여 能動的이고도 積極的인 參與로서 跳躍에의 힘찬 걸음을 다 함께 옮겨나갈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創刊辭에 가늠하는 바이다.